**“백종원이 뭘 알겠냐” 던 사장님..백종원은 “이건 멸치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장님의 레시피에 일침**

“백종원이 뭘 알겠냐”..‘골목식당’ 더 험난해진 골목상권 살리기

<https://www.msn.com/ko-kr/entertainment/news/%E2%80%9C%EB%B0%B1%EC%A2%85%EC%9B%90%EC%9D%B4-%EB%AD%98-%EC%95%8C%EA%B2%A0%EB%83%90%E2%80%9D%E2%80%98%EA%B3%A8%EB%AA%A9%EC%8B%9D%EB%8B%B9%E2%80%99-%EB%8D%94-%ED%97%98%EB%82%9C%ED%95%B4%EC%A7%84-%EA%B3%A8%EB%AA%A9%EC%83%81%EA%B6%8C-%EC%82%B4%EB%A6%AC%EA%B8%B0/ar-BBJcbjd?li=AA56X3&ocid=spartanntp>



© 제공: NewsEn “백종원이 뭘 알겠냐”..‘골목식당’ 더 험난해진 골목상권 살리기

백종원의 ‘골목상권’ 살리기가 더 험난해졌다.

2월16일 방송되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충무로 필스트리트 편 첫 번째 이야기로 꾸며진다. 이에 '백종원의 골목식당' 측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백종원 사단’이 합류하는 ‘백종원의 골목식당’ 관전포인트를 공개했다.

- 돈스파이크X차오루, 새로운 ‘백종원 사단’ 등장

먹방계의 ‘신흥강자’ 돈스파이크와 자칭 ‘백종원 수제자’ 차오루가 두 번째 ’백종원 사단‘으로 합류한다. 앞서 남창희X고재근이 이대 앞 ’꽃거리삼길‘에서 ’남고식당‘으로 매진행렬을 기록한 가운데, 두 사람은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제작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과 직업을 몰라 ‘셀프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급기야 차오루는 “돈스파이크가 요리사인 줄 알았다”며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식당 운영에 있어서는 의욕을 드러냈다. 첫 만남부터 필동 인근 식당을 돌아다니며 메뉴 구상에 돌입했고, 특히 돈스파이크는 본인이 직접 다양한 요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작진에게 의견을 구했다. “추운 날씨지만, 이왕 하는 거 제 식당 앞에 줄을 세워보고 싶다”는 호기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 첫 과정은 이날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충무로 ‘필스트리트’, 백종원도 어려워하는 새로운 장소 등장

“여기가 이대보다 더 어렵다”, 최근 충무로 필스트리트를 둘러보던 백종원의 한숨 섞인 목소리는 괜히 한 말이 아니었다. “점심 장사 30분이 곧 하루 매출”이라는 골목 사장님들은 생각보다 고집도 셌다.

백종원은 직접 가게를 방문해 문제점을 찾아내기에 나섰는데, 이 중 떡볶이집은 극악의 회전율로 백종원을 답답하게 했다. 결국 백종원은 구구단 세정과 함께 떡볶이 시식에 나섰다. ‘닮은꼴 부녀’의 기습 먹방에 사장님은 잔뜩 긴장했고, 이어지는 백종원의 백발백중 문제점 진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또한, 역할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음식 맛이 일정치 않았던 스테이크집도 백종원이 직접 방문해 음식을 맛보며 문제점을 진단해줬다.

반면 이번에도 백종원의 진단에 발끈한 식당도 있었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멸치로 육수를 낸다고 지적 받은 **멸치국수집 사장님은 “백종원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멸치는 짧게 우려야 맛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종원은 멸치육수를 우리고 남은 멸치를 직접 상황실로 가지고 올라와** MC들과 함께 시식했는데 멸치를 맛본 세 사람은 **육수를 내고도 진하게 남아있는 멸치 맛에 깜짝 놀랐고**, 백종원은 “이건 멸치에 대한 모독”이라며 사장님의 레시피에 일침을 가했다. (사진=SBS 제공)